노자, 가파도에 가다

비움과 낮춤의 지혜를 배우는 * 노자 철학 소설

독후 활동 자료

사□계절

차례

노자와 『도덕경』 02

국어 교사가 바라본 『노자, 가파도에 가다』 & 독서 후 질문 04

역사 교사가 바라본 『노자, 가파도에 가다』 & 독서 후 질문 08

활동 1. 『도덕경』의 지혜 탐색하기 12

활동 2. 『도덕경』 필사 일기 쓰기 16

함께 읽으면 좋은 사계절출판사의 책 20

사계절 지식소설 18

노자, 가파도에 가다 비움과 낮춤의 지혜를 배우는 노자 철학 소설

김경윤 지음

노자와 『도덕경』

명나라 후기의 화가 장로(張路, 1464~1538)가 그린 〈노자기우도〉(老子騎牛圖).
소를 타고 서쪽으로 떠나는 노자의 모습을 묘사했다.(출처: 타이완 국립고궁박물원)

노자는 중국 고대 철학자로 도가 사상의 시조이자, 장자와 더불어 '노장 사상'이라는 사조를 형성했습니다. 노자가 남긴 유일한 책인 『도덕경』은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동서양을 막론하여 많은 독자들을 만나 끊임없이 새롭게 읽히고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런 오래된 지혜를 전해준 노자는 어떤 사람이고, 『도덕경』은 어떤 책일까요?

노자는 중국 춘추 시대(기원전 770~기원전 403) 말기에 활동한 사상가입니다. 본래 이름은 이이(李耳)이고, 자는 백양(伯陽)이며, 노담(老聃)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기원전 571년경 태어나 기원전 471년경 세상을 떠났다고 추측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생몰 연대는 알지 못합니다. 공자와 맹자 같은 유학자들이 자신을 바로 세우고 세상에 나아가 이름을 떨치려 했다면, 노자와 장자 같은 도학자들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이름을 감추려 했기 때문입니다.

노자가 살았던 춘추 시대는 중국을 지배했던 주나라가 쇠퇴하고, 주변의 제후국들이 발호하는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노자는 초나라에서 태어나 성장하여 주나라 왕실의 문서를 담당하는 고위 관료로 일했습니다. 노자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권력을 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탐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나라가 쇠퇴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침내 주나라가 쇠퇴하는 것을 지켜본 노자는 은둔하기로 결심하고서 소를 타고 서쪽으로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던 중 진나라의 관문인 함곡관을 지나는데, 그곳을 지키고 있던 관리인 윤희(관윤)가 그를 알아보고는 "선생께서 장차 은거하시려 하니, 부디 저를 위해 글을 지어 주십시오" 하며 글을 써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노자는 5000여 자로 된 상하 두 편의 책을 써 주고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후 노자가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때 노자가 윤희에게 써 준 책이 바로 『도덕경』입니다. 『도덕경』은 81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은이의 이름을 따 『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노자가 살았던 춘추 시대와 이후 이어진 전국 시대(기원전 403~기원전 221, 두 시대를 아울러 '춘추 전국 시대'라고 부릅니다)는 난세의 시기였습니다. 주나라가 쇠퇴하면서 봉건 질서가 무너지고, 각지에서 제후국들이 패권을 두고 경쟁했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사회는 매우 혼란했으며, 사람들의 삶도 피폐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자 공자와 맹자가 중심인 유가, 노자와 장자가 중심인 도가, 한비자와 순자가 중심인 법가, 묵자가 중심인 묵가 등 다양한 학파와 사상가가 등장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 활약한 이런 여러 학자와 학파를 아울러 '제자백가'라 부르고, 이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하는 모습을 '백가쟁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노자는 평화로운 삶과 사회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만물의 질서인 '도(道)'를 따르는 '덕(德)'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노자의 생각이 집약된 말이 바로 '무위자연(無爲自然)'입니다. '무위(無爲)'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음', 즉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연(自然)'은 '스스로 그러함'이라는 뜻으로, 인위적인 목적 없이 본성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상선약수(上善若水)', 최고의 선은 물과 같으며, '유지승강(柔之勝剛)',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듯 노자의 『도덕경』은 약 5000자의 한자, 81편의 시로 이루어진 짧은 책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삶과 우주를 관통하는 심오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도덕경』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자의 사상은 전쟁에 휩싸이고 환경 파괴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비폭력과 생태주의가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외적인 성취와 양적인 성장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우리에게 겸손과 검소함이 중요함을 이야기하며,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 성찰하게 합니다. 『도덕경』에 담긴 노자의 오래된 지혜를 『노자, 가파도에 가다』와 함께 만나 보기 바랍니다.

국어 교사가 바라본 『노자, 가파도에 가다』

노자가 보여 주는 새로운 삶의 감각

김영희(조치원중학교 교사)

오랜 시간 도서관에서 종이책 다루는 일을 해 온 '백양'은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도서관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자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품고 도서관을 떠난다. 은퇴 후 서재에 틀어박혀 책만 읽던 백양에게 때마침 대학교 동창 '미경'의 초대가 도착하고, 그는 제주도 남쪽에 있는 낯선 섬 가파도에 방문한다. 『노자, 가파도에 가다』는 백양이 섬에 머무는 2년 동안 그간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이야기이다. 백양의 가파도행은 단순한 휴식이나 치유의 여정이 아닌 삶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사건'이다.

가파도는 현대 사회에서 추종되는 가치들과 정반대의 속성을 지닌 공간이다. 시간에 쫓겨 처리해야 하는 급한 일이 없으므로 다리와 자전거가 주요한 이동 수단이 되기에 충분하고, 삶과 죽음의 경계가 뚜렷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길고양이들은 추운 겨울을 함께 견뎌야 하는 지역의 이웃으로 인정되어 존중받는다. 소설은 이러한 물리적, 정서적 조건을 지닌 가파도를 노자적 이상향으로 그린 뒤 그 안에서 백양이 이루어 나가는 일상을 그린다. 백양은 이곳에서 노자의 『도덕경』을 다시 읽고 일상을 일기로 옮기며 매일 같이 새롭게 익히는 삶의 감각을 켜켜이 쌓는다.

> "내 이름은 노자야. 늙은이란 뜻이지."(33쪽)

소설의 앞부분에서 미경이 돌보던 고양이들에게 백양이 자신을 소개하는 이 장면은 그의 자기 인식을 드러낸다. 고양이 각각의 특성을 담아 '먹자, 비비자, 숨자, 놀자, 달리자, 싸우자'라는 이름을 붙여 준 뒤 백양은 스스로를 '노자'라 명명한다. 이는 은퇴한 자신, 나이 든 자신을 긍정하는 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축되는 시스템 앞에서 "자신의 시간이 끝났음을 직감"(8쪽)하며 사직서를 쓴 과거와 '늙음'이라는 속성을 이름으로 직접 드러내는 현재의 백양 사이의 변화는 상당히 크다. 이 자기 명명은 노자의 철학을 따르면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백양의 주체적 선언이다.

섬에서 시간을 보내며 백양은 점차 '관찰자'에서 '참여자'가 된다. 처음에는 한 달만 지낼 계획으로 입도했으나 백양은 가파도에서 2년간 머무른다. 그동안 그는 고양이를 돌보는 이에서 매표소 직원으로, 초등학교의 독서 지도 강사로, 작은 도서관의 관장으로 삶의 무대를 확장한다. 더 큰 공간으로의 내디딤이 그의 정체성을 옅게 만들거나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인상적이다. 그는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복무하는 개인'이 아닌, 자신의 특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서 기여하고 인정받는 존재로 가파도에 존재한다.

가파도에서 그에게 요구되는 임무는 모두 제각각 새로워서, 처음에는 필연적으로 서투를 수밖에 없지만 이내 백양은 "반복되는 일이 주는 축복"(46쪽)을 경험하며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 不亦悅乎, 학이시습지 불역열호)"라는 공자의 가르침을 체감한다. 자신의 속도로 부지런하고 단단하게 일상을 살아 내며 자연스레 삶의 주인이 되는 백양을 지켜보며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을 소외시키는 요인들을 떠올리게 된다. 은퇴 전에 비해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삶을 선택했지만 이전보다 더 풍성한 나눔, 더 단단한 주체성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규모의 성장과 확장만을 추구하는 현대적 성공 개념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 가파도 집은 건형이하고 너에게 넘기도록 해 놨어. 있을 만큼 있다가 떠나도 돼. 그리고 주변의 친구 중에서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나 찾아와 쉴 수 있도록 쉼터로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 사람들은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 숨을 곳이 있어야 하거든. 우리 집이 그런 휴식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단다.(70쪽)

'전복'은 이 작품을 해석하는 주요한 핵심어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공간성의 전복이다. 대도시에서 가파도로 이동한 뒤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백양의 모습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이 작품이 보여 주는 태도 또한 전복에 해당한다. 세상을 뜨기 전 자신의 집과 오랫동안 돌봐 오던 고양이를 친구들에게 맡기는 미경의 선택은, 백양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 보인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작이 된다. 누군가의 죽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죽음을 앞둔 이'는 '떠남'의 주체로 다시 서며 '안타깝고 불쌍한'이라는 수식을 자신에게서 떼어 낸다. 동시에 누군가의 죽음 후 삶의 공간에 남은 이도 단순히 죽은 자와 대비되는 살아 있는 자가 아니라, 고인이 남긴 유산을 통해 '새로운' 삶을 '다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저는 1장의 처음에서 가르침과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말했어요. 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지요. 왜 끝이 없고, 끝이 있어서는 안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근원적으로 무지한 존재이고, 늘 새롭게 변화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인간은 인공지능과는 달리 무한정 지식을 축적할 수 없어요. 살아가면서 부단히 필요 없는 것을 지우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새로운 것을 채우는 과정을 겪어야 하지요. 그래서 가르침과 배움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삶의 곳곳에서 이루어지지요."(138쪽)

소설이 독자에게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은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이다. 작품의 도입부에서 등장하는 '종이책 없는 사회'는 기술 발전의 방향성이 인간 고유의 감각과 감정, 기억의 형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문제 삼는다. 디지털 교과서, 평가 자동화, 전자책의 시대에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매체가 아니라, 손으로 쓰고,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생각하던 삶의 태도이다. 백양이 손으로 『도덕경』을 필사하며 일기를 쓰는 것은 그러한 기술 중심 세계에 대한 조용한 저항이자, 인간 존재의 지속 가능성을 탐색하는 방식이다.

결국 이 소설은 노자의 철학을 인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살아 내는 방식'으로 재현해 낸다. 말없이 가르치고, 억지로 하려 하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켜 주는 삶. 『노자, 가파도에 가다』는 바로 그런 무위의 삶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으로 전하고 있다.

국어 교사가 전하는 『노자, 가파도에 가다』 독서 후 질문

1. 백양이 가파도에서 맡게 된 새로운 역할은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 정착하게 되나요?
2. 고양이처럼 조용히 곁에 머무는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배운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3. 백양과 중국의 학자 노자는 어떠한 점에서 비슷하고 다른가요?
4. 미경은 왜 친구들과 직접 만나 이별하지 않았을까요?
   미경이 백양에게 쓴 편지를 읽으며 생각하고 느낀 점을 나누어 봅시다.
5. 가파도에서 경험한 '느림'은 백양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요?
6. 기술 발전과 디지털화는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7. 기술이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인간성이나 관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나요? 왜 그런가요?
8. '종이책 없는 사회'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며,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입장인가요?
9. 이 작품에서 보여 주는 인간관계는 기존 소설이나 영화, 만화 등에서 그려지는 우정, 사랑, 가족 관계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10. 백양처럼 어떤 공간에서 '다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공간을 선택하고 싶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영희

전국국어교사모임 독서교육분과 '물꼬방'에서 학생들과 책을 읽으며 할 수 있는 일들을 공부하고 있다. 『챗GPT로 독서 수업』, 『웹소설로 독서 수업』, 『우리들의 랜선 독서 수업』을 함께 썼다. 책의 힘, 우정의 힘을 맹신하는 사람.

역사 교사가 바라본 『노자, 가파도에 가다』

책이 사라지는 시대, 노자와 함께 배우는 느림의 철학

권은재(풍생고등학교 교사)

책이 사라지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종이 위에 적힌 지혜와 기억이 천천히 밀려나고 있다. 도서관은 스마트한 디지털 공간으로 리모델링되고, 책장은 클라우드 서버로 대체된다. '속도'와 '효율'이 '깊이'와 '성찰'을 몰아낸다. 지식은 넘쳐나지만, 깊이는 얕아지고 있다. '책 읽기'는 점점 낯선 일이 되어 가고 있다. 스마트폰, 유튜브, 인공지능(AI) 요약 앱이 독서를 대신하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책 안 읽어도 AI가 다 알려 줘요."

디지털 시대의 독서는 '읽는 행위'보다 '훑는 행위'에 가까워지고 있다. 사람들은 검색하고, 클릭하고, 요약된 답을 빠르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삶의 본질적인 질문들은 그렇게 간단히 배울 수 없다. 수천 년 전 사람들이 남긴 생각, 선택과 후회를 이해하려면 천천히 곱씹으며 읽는 시간이 필요하다. 책은 바로 그 '느림'을 가능하게 해 준다. 정보는 화면을 통해 빠르게 얻을 수 있지만, 통찰은 오직 책 속에서만 서서히 길러진다. 그렇다면 책이 사라지는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평생을 도서관에서 일하다 은퇴한 백양은 이 질문을 품고 제주 가파도로 떠났다. 도시의 소음을 뒤로한 채, 사람의 발길이 드문 섬에서 그는 다시 '읽는 존재'로 돌아가고자 했다. 가방에는 노자의 『도덕경』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책은 단순한 철학서가 아니었다. 삶의 리듬을 되찾고, 인간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나침반이었다. 백양의 이야기는 평범한 여행기처럼 시작하지만, 곧 노자가 말한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을 실천하는 철학적 여정으로 이어진다.

가파도에서의 삶은 단순하다. 아침이면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바닷가를 산책하며, 서재에 들어가 『도덕경』을 필사하고 일기를 쓴다. 그러던 어느 날, 백양은 문득 깨달았다. 고양이의 태도에서 노자의 말이 떠오른 것이다. 고양이는 억지로 친해지려 하면 도망가고, 가만히 두면 먼저 다가온다. 책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읽으려 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곁에 두고 기다리면 어느 순간 먼저 말을 걸어온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기다림'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우리는 요약본을 찾고, 시험에 나올 것만 골라 읽는다. 필요한 정보만 재빨리 흡수하고, 곧 잊어버린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읽기가 아니다.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천천히 마주하지 않으면, 노자의 말도, 사람의 마음도, 삶에서 느껴지는 진심도 결코 읽히지 않는다.

노자는 단 한 권의 책, 『도덕경』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전해진다. 단 5000자 남짓의 문장이지만, 20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 짧은 글 안에는 '비움'과 '자연스러움'이라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 백양은 가파도에서 그 책을 읽으며 자신의 삶을 다시 써 내려갔다. 바다의 숨결, 고양이의 눈빛, 해녀의 일상, 자전거 소리, 바람과 햇살 속에서 그는 문명의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서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 가파도는 어쩌면 노자가 말한 '소국과민(小國寡民)'의 이상이 구현된 공간일지도 모른다. 사람은 적고 자연은 넉넉하며, 삶은 단순하지만 내면은 더욱 깊어진다. 그곳에서 백양은 오래된 질문을 다시 되살린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인간다운 삶인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노자가 활동하던 춘추 전국 시대는 혼란의 시기였다. 주나라의 권위는 무너졌고, 제후들은 권력 다툼에 정신이 없었으며, 민중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갔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공자, 묵자, 장자, 노자 등 다양한 사상가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회 질서를 되찾기 위해 인간과 사회의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그중에서도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다스리지 마라. 통제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는 오히려 '무위이치(無爲而治)', 하지 않음으로써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통치라고 보았다.

이 말은 오늘날의 교육 현장에도 깊은 울림을 준다. 우리는 자유보다는 통제에 익숙해지고, 삶을 위한 공부보다는 점수를 위한 공부에 매몰되며, 질문하기보다는 정답 찾기에 길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노자는 말한다. "강한 것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유연한 것이 살아남는다." 그렇다면 진정한 교육이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 주는 것'이며, 참된 지혜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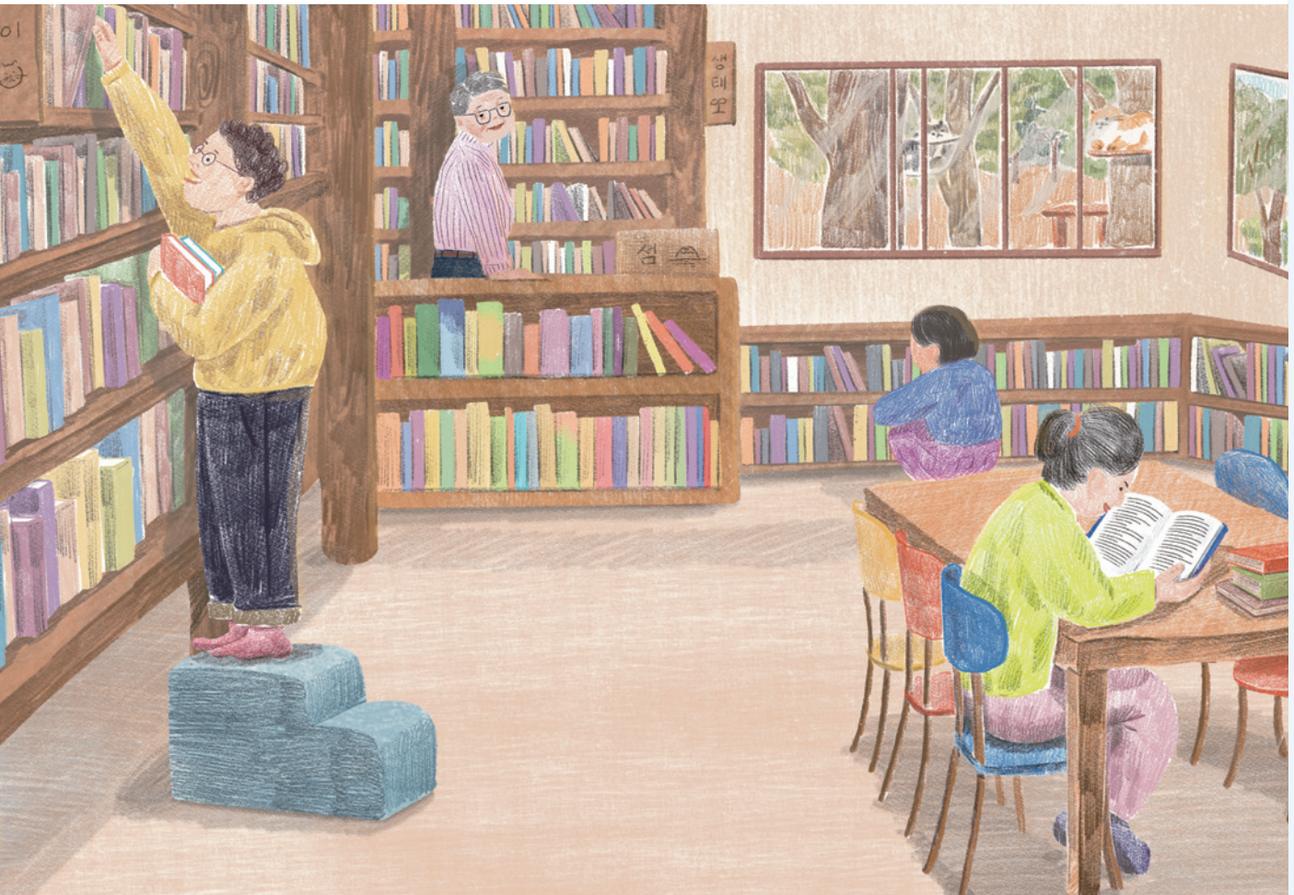
지금 우리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영상으로 공부하고, AI가 요약해 준 내용으로 책 내용을 빠르게 파악한다. 그러나 AI는 정보를 줄 수는 있어도 질문을 줄 수는 없다. 질문은 책에서 시작된다. 질문이야말로 사고의 출발점이며, 독서의 본질이다. 빨리 읽는 것보다, 깊이 읽는 것이 중요하다.

책은 우리에게 '사고의 여백'을 준다. 클릭 몇 번으로 끝나는 정보가 아니라, 스스로 사유하고 해석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 준다. 디지털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지혜는 결국 종이의 여백에서 길

러진다. 그러므로 디지털 시대일수록 책이 더 필요하다.

노자는 말했다.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기를 아는 자는 밝다."(『도덕경』 33장) 세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아는 길은 오직 사유하는 독서 안에서 가능하다. 꼭 『도덕경』이 아니어도 좋다. 단 한 권의 책이라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천천히 읽고,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것이다.

이제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 두고, 책 한 권을 조용히 펼쳐 보자. 스크린이 아닌 책장을 넘기며, 정보가 아닌 이야기를 만나 보자. 그 책은 언젠가 우리에게 말을 걸 것이다. 자기만의 '가파도'를 찾길 바란다. 이 책을 펼친 여러분은 이미 그 출발점에 서 있다.



역사 교사가 전하는 『노자, 가파도에 가다』 독서 후 질문

1. 노자가 활동하던 춘추 전국 시대는 어떤 시대였으며, 왜 다양한 사상가들이 등장했을까?
2. 노자의 사상은 당대의 통치자와 백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3. 노자의 사상은 현대 사회, 특히 디지털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4. 노자의 '무위자연(無爲自然)'과 '무위이치(無爲而治)'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
5. 노자의 '소국과민(小國寡民)' 개념은 오늘날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
6. 책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책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할까?
7. 오늘날 '인위(人爲)'가 불러온 부작용에는 무엇이 있을까?
8. 노자의 철학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리더십은 무엇일까?
9. 기억과 기록은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 왔을까?
10. 삶에서 '무위(無爲)'의 태도를 실천할 수 있는 순간은 언제일까?

권은재

풍생고등학교 역사 교사이자 교육공학 박사. 경기중등역사교육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역사 수업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2022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함께 읽기는 힘이 세다 2』, 『영화와 함께하는 세계사』, 『영화와 함께하는 현대 사회』를 함께 썼다.

활동 1. 『도덕경』의 지혜 탐색하기

『노자, 가파도에 가다』에 등장하는 노자의 지혜를 한자로 따라 쓰고, 그 아래에 우리말 풀이를 적어 봅시다. 그리고 아래 제시된 『도덕경』 구절의 빈 칸에 들어갈 말을 책에서 찾아 채우며, 『도덕경』의 지혜를 음미해 봅시다.

小	國	寡	民
작을 소	나라 국	적을 과	백성 민

“ ”

[ ] 를 작게 하고 [ ] 를 적게 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 ] 가 있더라도 쓰지 마십시오.

백성들이 [ ] 을 중히 여겨 멀리 [ ] 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비록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타지 말고,

[ ] 과 [ ] 가 있어도 [ ] 마십시오.

사람들이 [ ] 의사소통하도록 하십시오.

『도덕경』 80장 중에서

無	爲	自	然
없을 무	할 위	스스로 자	그러할 연

“ ”

세상의 지극한 [ ] 이

세상의 지극한 [ ] 을 이기는 법

[ ] 을 없애야 틈 없는 곳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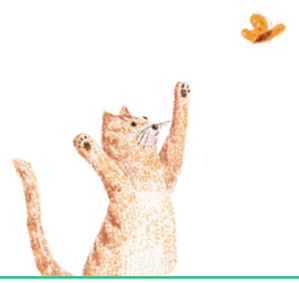
그래서 나는 [ ] 의 유익함을 압니다.

[ ] 가르침,

[ ] 의 유익함

세상에 이보다 나은 것이 드뭅니다.

『도덕경』 43장



上	善	若	水
위 상	착할 선	같을 약	물 수

“ ”

가장 훌륭한 것은 [ ]과 같습니다.

[ ]은 만물을 섬길 뿐 만물과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 ]에 거합니다.

그래서 [ ](道)와 가깝습니다.

[ ]은 낮은 곳에 거하고

[ ]은 깊고

[ ]과 함께하고

[ ]은 믿음직하고

[ ]은 바르고

[ ]을 다해 섬기고

[ ] 움직이고

[ ] 않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습니다.

『도덕경』 8장

我	有	三	寶
나 아	있을 유	석 삼	보배 보

“ ”

나는 세 가지 보물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 ]이요,

둘째는 [ ]이고,

셋째는 세상에 [ ]입니다.

[ ]에 용감해지고

[ ]에 널리 베풀 수 있고

[ ]에 천하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도덕경』 67장 중에서

활동 2. 『도덕경』 필사 일기 쓰기

『노자, 가파도에 가다』에서 백양은 노자의 『도덕경』을 읽으며, 한 편 한 편 손으로 옮겨 적고, 그 옆에 일기를 썼습니다. 책에서 읽은 『도덕경』 가운데 내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옮겨 쓰고, 그와 관련된 일상의 경험이나 생각, 감정 등을 적어 봅시다.

『도덕경』 장

날짜

『도덕경』 장

날짜

『도덕경』 장

날짜

『도덕경』 장

날짜

함께 읽으면 좋은 사계절출판사의 책

지식소설

장자, 아파트 경비원이 되다

삶의 지혜를 주는 장자 철학 소설

김경윤 지음

홈페이지 다운로드

작은 세계에 갇혀 있는 우리를 거대한 세계로 초대하는 장자의 철학!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우화로 이루어져 이해하기 어려웠던 『장자』를 우리 삶에 가깝게 만납니다. 아파트처럼 단절적인 공간에서 모든 것을 돈으로 환원할 뿐인 현대인의 가치관에 장자 철학이 주는 교훈과 지혜를 담았습니다. 상식을 뒤엎고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장자의 철학이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되살아납니다.

주니어클래식

논어, 사람의 길을 열다

배병삼 지음

『논어』는 공자가 추구한 아름다운 인간 문명의 상이 오롯이 담긴 대화록입니다. 10년 넘게 『논어』를 연구하고 강의해 온 저자가 공자의 인생관, 정치 철학, 경제 운용 원칙, 예술적 가치 판단 등 스무 가지 주제를 뽑아서 『논어』를 풀어 썼습니다. 청소년들이 『논어』의 문제의식과 지혜를 제대로 되새길 수 있게 발랄한 언어와 현대적 감수성으로 원전을 해석한 점이 매우 뛰어납니다.

주니어클래식

중용, 극단의 시대를 넘어 균형의 시대로

신정근 지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읽기 힘든 동양 고전 『중용』. 저자는 원활한 독서를 위해 일목요연하게 주제별로 재구성하고 현대적인 감수성으로 쉽게 풀이합니다. 덕분에 중용의 의미가 밝혀지며, 그 지혜가 가슴에 다가오게 됩니다. 극단의 시대를 경험한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그를 극복할 사유가 담겨 있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섬과 바다, 이웃과 고양이에게 배우는 노자의 철학
이야기로 만나는 『도덕경』의 지혜

인공지능과 기후 위기의 시대, 어느 날 백양에게 옛 친구 미경의 전화가 걸려 온다.
미경의 초대를 받고 제주도 남쪽 작은 섬 가파도로 향하는 백양.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동물,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섬 가파도에서 백양은 노자의 철학을 마주한다.
섬이 가르쳐 주는 소국과민, 고양이가 보여 주는 무위자연, 바다가 일러 주는
상선약수까지…… 노자의 지혜가 알려 주는 '좋은 삶'의 열쇠들을 만나 보자.

지혜를 얻는 데 독서만 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오랜 세월 인류에게 검증받은 좋은 책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견디고 살아남은 책을 '고전'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지혜가 담긴 책'이지요. (……) 노자는 지혜로운 사람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노자가 인류에게 남긴 유산은 고작 5천여 자 되는 한문이었습니다. 그 짧은 글을 쪼개고 나눠서 81편의 시로 엮은 것이 『도덕경』입니다.

—작가의 말 중에서